

IT인들을 위한 맞춤형도집회 [하이터치]

첫째날 - 진정한 프런티어 예수

하용조 목사 / 2005

IT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다면 프런티어(개척자), 메신저(전달자), 유비쿼터스(기술 혁신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인의 빛과 그림자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IT업계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 대해 알아보니까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 직업 자체가 굉장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답이 무엇인지, 길이 어디인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은 심리적 어두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돈만 조금 벌면 조기은퇴를 하겠다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셋째, 성공에 대한 환상과 대박의 꿈을 좇는 여러분에게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 사이에 박탈감이 엄청나게 큼니다.

넷째, 기술은 디지털이지만 인간은 아날로그인데서 갈등합니다. 우리 몸, 삶은 아날로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술은 디지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결국 IT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 아닙니까? 돈도 얻고 명예도 얻었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긍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 중에 하나는 장인정신과 프로정신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업에 대한 프로 정신, 어떤 분야에 대한 장인정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다른 분야와 달리 이 분야에서는 특별히 불가능에 도전하는 개척 정신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개척 정신은 역사와 인생과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IT업계에 종사

하는 분들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IT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남 도와주기가 좋습니다. 컴퓨터라는 무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북한도 여러분을 원합니다. 후진국 일수록 여러분을 원합니다. 이슬람도, 공산권도 여러분을 원합니다. 이념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여러분의 전문성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몇 가지 공식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그림자도 있고 빛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부분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들을, 그 긍정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극대화 해 나가고 계속 추구해 나가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속도를 따라 살면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혹시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속도를 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해진 이상의 속도를 달리게 되면 여러분의 눈은 주변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속도는 쾌감을 줍니다. 속도는 승리감을 줍니다. 그러나 속도는 앞만 보게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에 사고를 부릅니다. 물론 이 업계에서는 늦게 가면 지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방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취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 쾌락보다 중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내가 좀 못 먹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동이 행복을 줍니다.

넷째,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불안해 집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변화시켜선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변해야 할 것을 붙잡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두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기 컵이 있어요.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이 컵은 누군가 설계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안경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누군가 안경을 만들었고 그 혜택을 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대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태양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믿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그 존재를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 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시 94:9)
볼 수 없는 분이 어떻게 보는 눈을 만들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 세상에 있는 과학 기술 문명은 바로 이 원천에서부터 모두 복사한 것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곁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왜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목사에게서 상처를 받아서 그 옆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이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잠시 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아라, 교회에 나와라, 새벽기도에 다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술하고 담배를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마치 복한에 두고 온 가족을 찾듯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임신은 하룻밤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에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해야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기막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